

김정은 10월 5차 중국 방문 관측

중 왕이 부장, 리용호와 면담 북미 대화 돌파구 마련되나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지난 1월 8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섯 번째 중국 방문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게 된다면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 등에 진전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왕이 외교부장은 평양 도착 첫날 리용호 외무상과 만나 북중 친선관계 확대 및 발전 방안과 더불어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계에서는 왕 부장의 이번 방북이 10월 북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0월1일은 중국 국경절(건국 기념일), 10월6일은 북중수교 70주년 기념일이다. 이를 계기로 김 위원장이 5차 중국 방문을 하고 북중 친선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 위원장의 방중 여부가 주목되는 점은 지난해부터 북미 대화 등 한반도 정세 변화와 관련해 중대한 시점마다 이뤄져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방중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 고위관계자의 방북을 전후로 이같은 움직임이 있었다.

중국 외교부와 북한 관영매체 등에서는 왕 부장의 김 위원장 면담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지난해 방북 당시에도 김 위원장을 면담한 전례를 봤을 때 만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왕 부장이 김 위원장을 만났다면 시

주석의 초청 의사 등을 전달하고 방중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의 역할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방북 당시 북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북한의 합리적 우려 해결을 돕겠다"고 적극적인 관여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왕이 부장의 방북이 교착 국면에 놓인 북미 대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판을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국이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김동업 경남대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를 1년 정도 앞둔 상황 속에서 연말까지(북미 대화) 기한이 석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왕이 부장의 방문 자체가 긍정적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시진핑이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니 북미 실무회담 개시의 보이지 않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제7차 유엔총회의 일반토의 기조연설자를 장관급에서 대사급으로 변경해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표면적으로는 리 외무상이 이번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지만 본격적인 실무협상 재개 전 실바싸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참석 여부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 만큼 리 외무상이 기조연설자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북한이 실무협상을 위한 북미 간 물밑접촉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리 외무상의 유엔총회 참석 여부를 막판까지 밝히지 않으면서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9월 유엔총회에 이어 10월 김 위원장 방중이라는 이벤트까지 이뤄지게 되면 한반도 정세에 또 한번의 중대한 변곡점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

홍콩 송환법 반대 '3파 집회'에 4만명 참여

홍파업 끝났지만 동맹휴학 지속



홍콩 시내 중심가에서 지난 2일 한 시위자가 '홍콩을 위한 파업. 전민 3파'이라고 쓴 종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개정에 반대하는 '3파 운동, 파공(罷工 파업), 파과(罷課 동맹휴학), 파매(罷買 불매운동)'에 4만명이 동참했다.

4일 미국의소리방송 중국어판은 2~3일 열린 3파 집회에 주최측 추산 이틀 모두 4만명이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의료와 항공 등 30여 개 분야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해 예상됐던 21개 분야보다 많았다. 주최측은 3일 저녁 7시(현지시간) 이틀간의 집회 종료 선언했다.

홍파업은 끝났지만 학생들의 동맹휴학은 오는 13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홍콩 10개 주요 대학 학생회는 캐리 램 장관에게 오는 13일 오후 8시 전까지 시위대가 요구해온 직선제 실시, 송환법 철폐, 시위대 폭도 규정 철폐, 경찰 과잉 진압 독립적인 조사, 체포된 시위대 석방 등 5가지 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홍콩 정부가 이에 답하지 않으면 수

업 거부를 연장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홍콩 경찰이 2일 저녁 최소 11명을 체포했다.

3일 오전 이반 램 데모시스토당 주석은 홍콩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램 주석에게 불법 시위 참여 및 선동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홍콩 경찰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6월부터 지금까지 1천117명을 체포했고 이중 다수는 기소됐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

베트남 전역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400만마리 폐사·살처분

축산돼지 2천700만 마리의 13%에 해당한다. 베트남에서 돼지고기는 전체 육류소비 4분의 3을 차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베트남 전역에 확산되면서 전체 13%에 해당하는 400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폐사하거나 살처분됐다.

4일 VN익스프레스(VNExpress) 등 베트남 언론들은 지난달 31일 베트남 남부 다투언성 인근 지역 농장에서 폐사한 돼지들이 ASF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다투언성은 그동안 베트남 63개 성 및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ASF가 발생하지 않았던 곳이다.

지난 2월 북부 흥옌성에서 처음으로 ASF가 발생한 후 중부를 거쳐 급속도로 확산돼 5월 초에는 남쪽까지 확산됐다.

폐사 혹은 살처분된 400만마리는 베트남 전체

이에 따라 당국은 울해 말 돼지고기 공급 부족 및 육류 가격 상승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베트남 돈육 산업의 규모는 총 94조 동(약 4조9천억원)으로, 전체 농업 부문의 10%를 차지한다.

VN익스프레스는 베트남 국립농업대가 지난 3월 백신 연구를 개시해 현재까지 4종의 백신이 개발됐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7월 농업대는 4종 백신 중 한가지는 14마리 ASF 감염 돼지를 상대로 한 실험에서 13마리에게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고 부연했다. 뉴스

영준슨 "반란파 21명 보수당 나가라"

영국 집권 보수당이 3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당론을 어기고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을 표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낸 집권 보수당 소속 의원 21명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가디언, BBC에 따르면 보수당 제1원내 총무(Chief Whip)인 마크 스펜서 의원은 이날 반기를 든 21명의 의원에 출당의 뜻을 물었다고 전했다.

21명에는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내각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필립 해먼드 의원, 법무장관을 지낸 데이비드 고크 의원, 하원 최장수 현역 의원인 켈 클라크 의원, 윈스턴 처칠 전 총리의 손

자인 아서 니컬러스 윈스턴 숄스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 중 10여명은 탈당 의사를 밝혔다고 가디언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앤드리아 레드섬 기업부 장관은 표결이 끝난 후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수당 반란파를 당에서 당장 쫓아내진 않을 것이라며 "21명의 의원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반기를 든 의원들에게 "하룻동안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던 레드섬 장관은 존슨 총리의 출당 결정 소식에 "21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 당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급하게 입장을 변경했다. 뉴스

日 육일기 사용 강행... "정치적 선전 야나"

한국 강한 우려 표명에도 도쿄올림픽때 사용 허락



일본이 한국 정부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전반기인 육일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한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육일기의 올림픽 경기장 반입 금지 조치를 조직위 등에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 지난 3일 "육일기는 일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깃발 게시 자체가 정치적 선전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입 금지 물품으로 하는 것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육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결의안에서 올림픽 및 패럴림픽 등 국제 경기대회에서 경기장 내에 육일기와 육일기를 활용한 유니폼 및 소품을 반입하고, 이를 활용한 응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육일기를 활용한 응원에 대해서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의 대상이 된 국가들에게는 아픈 기억을 자극하는 행위인바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의 실현이라는 올림픽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육일기(旭日旗)는 아침햇살이 퍼져나가는 모양을 형상화한 군기로 1870년 일본 육군이 처음 사용했다. 이후 태평양전쟁 등 일본

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걸리면서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반기로 통한다.

비슷한 예로 나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갈고리 십자가 문양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를 들 수 있는데, 독일은 스스로 전반기로 규정해 법으로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일본은 1954년 자위대 발족에 따라 육상자위대 '자위대기'로, 해상자위대에는 '자위함기'로 육일기를 정식 채택하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뉴스

광주 최대 변화가! 최고 광고효과!

광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전광판 광고 (신세계안과 옥탑)

01 광주 최고 유동인구 밀집지역

신세계백화점, U-Square, 광주종합버스터미널, e마트 등

02 광주 최대 광복대로에 위치

20차선 차량 정체 극심 지역, 57개 버스노선 경유지(광주 최대)

03 무등일보, 뉴시스 뉴스와 생활정보 편성, 높은 주목도!

04 두 개 (무진대로, 죽봉대로) 광복대로에 노출되는 광고효과 X2

1일 100회, 월 3,000회 노출!! (20초 광고 기준)

▶ 스크린 크기: 13.6m x 7.7m ▶ 해상도: LED풀컬러 국내 최고 화질

▶ 하루 18시간, 20구좌 상업광고노출 ▶ 광고노출시점: 계약 즉시 가능

믿을 수 있는 그룹의 No.1 광고회사

SRB **SRB 에드** 문의 062) **510-4650**